coupang newsroom

[보도자료] 쿠팡플레이 예능 '자매치킨' 신예은, SNL 크루도 탐내는 예능 감각 어떻길래? MVP급 활약으로 피날레 장식!

2026. 3. 16.

자매치킨

쿠팡플레이 예능 <자매치킨>이 배우 신예은의 역대급 활약과 함께 유종의 미를 거뒀다. 지난 14일(토) 공개된 최종화에서 신예은은 김원훈, 조진세와 함께 거침없는 솔직함과 대체 불가능한 러블리함으로 현장을 완벽히 장악했다.

신예은은 등장과 동시에 역대급 잔망 매력을 터뜨리는 예능감을 선보여 현장을 초토화시켰다. 마라톤 동호회 탈퇴를 선언하며 션에게 영상 편지를 띄운 신예은은 **"선배님, 저 사실 바쁜 게 아니라 안 뛰고 싶어서 안 나간 거예요. 러닝은 잘 모르겠어요"**라며 눈물 섞인(?) 양심 고백을 하자, 동호회원들은 모두 **"너무 귀여워"**를 연발하며 신예은의 엉뚱한 매력에 열광했다.

신예은의 폭주하는 예능감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화제를 모았던 '애교 배틀' 재현은 이날의 하이라이트였다. 주저함 없는 애교 발산에 김원훈과 조진세의 리액션은 실제로 고장 나며 폭소를 자아냈다. 여기에 강렬한 폭풍 랩과 순식간에 '리틀 박연진'으로 빙의하는 순발력까지 더해지며 모든 상황을 '신예은화' 시키는 진수를 선보였다. 이수지와 김원훈은 **"SNL 코리아>에 신예은 와라!"**를 외치며 현장은 순식간에 '신예은 팬클럽'을 방불케 하는 열기로 달아올랐다.

MVP급 활약을 펼친 신예은 편으로 막을 내린 <자매치킨> 인기 배경에는 이수지와 정이랑의 '만렙 케미'가 단연 빛났다. <자매다방>에서부터 이어진 과장과 희화화 없는 이수지표 '캐릭터 멀티버스'는 디테일한 관찰에서 출발한 상황극으로 출연자들이 부담없이 놀 수 있는 판을 깔아줬다. 이성경과 채종협을 시작으로 박민영, 위하준, 하정우, 정수정, 심은경, 주원 등의 초특급 게스트들이 그 동안 어디에서도 볼 수 없던 예능 포텐을 터뜨릴 수 있었다.

이수지 영혼의 파트너 정이랑은 대본 없이도 통하는 폭발적 순발력으로 '웃음 보증수표' 역할을 톡톡히 해냈으며, 김원훈과의 지독한 '혐관 케미' 세계관은 매번 핵심 재미축으로 자리 잡았다. 여기에 첫 예능 시도임에도 게스트들을 편안하게 무장해제 시키는 막내 민의 감초 활약까지 더해지며, <자매치킨>은 출연진과 게스트가 함께 어우러지는 완벽한 시너지를 완성했다.

러닝, '경도', 발레, 마라톤 등 최근 MZ세대가 열광하는 '동호회 문화'라는 설정 역시 공감대를 높였다. 주변에 있을 법한 인물들을 정밀 스캔한 캐릭터들이 일상 속으로 들어가 만들어내는 웃음은 매회 '짤 생성 맛집'으로 등극하며 온라인상에서 꾸준한 화제성을 이어갔다. 또한 귀로는 자연스러운 대화의 흐름을 즐기고 눈으로는 '본캐'들의 리얼한 시너지를 확인하는 '2026년형 고밀도 밥친구 예능'으로서 토요일 오후를 책임졌다는 평가다.

<자매다방>에 이어 <자매치킨>까지 연타석 흥행에 성공하며 확실한 고정 시청층을 결집시킨 '자매 시리즈'에 대해 시청자들은 웃음과 케미에 대한 호평을 쏟아내고 있다. **"역시 믿고 보는 자매 시리즈, 대박!", "이수지, 정이랑의 케미는 최고!!!", "믿고 보는 이수지, 정이랑. 김원훈도 계속 해줄 거죠?"에 이어 "주원 오빠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게 이야기를 풀어내서 좋았어요", "이성경이 매력적이고 채종협의 예능 초보 느낌이 신선했어요"** 등 평소 예능에서 만나보기 힘들었던 배우들의 새로운 매력에 열띤 호응을 보내고 있다.

신예은의 역대급 활약과 함께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한 <자매치킨>의 전편은 오직 쿠팡플레이에서 만나볼 수 있다. 쿠팡 와우회원은 물론 일반회원 누구나 쿠팡플레이에서 무료로 시청 가능하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